

SPECIAL REPORT **중일SUNDAY·興時齋** 공동기획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 해부

軍産複合팀

〈군산복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풍부한 글로벌 경영 경험과 화려한 군사 경력을 두루 망라한 ‘군산(軍産)복합형’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 공식 발표했다. ‘세력 전이’ 시대 미국의 세계 경영을 위한 ‘상인’과 ‘무인’의 기묘한 혼성팀 구성은 앞으로

어떤 대외 정책을 낳게 될지, 특히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민감한 외교적 현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번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 인선 결과를 토대로 전망해 본다.

상인·무인 혼성팀, 협상력·작전력 최대 키우는 ‘투트랙’

〈商人〉

〈武人〉

이민규 역시재(與時齋) 연구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함께 세계는 그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했다. 최근 트럼프 진영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거의 완료되면서 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는 국무장관에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CEO) 렉스 틸러슨(64)을 발탁하면서 ‘협상가 라인’을 구축했다. 국방장관에는 ‘미친개(Mad Dog)’로 불리는 4성 장군의 전 중부군사령관 제임스 매티스(66),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전 국방정보국 국장을 지낸 3성 장군 마이클 플린(58)을 지명해 ‘베테랑 군인 라인’을 선보였다.

미국의 향후 5년간 외교안보 노선과 정책은 이제 이 분야의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과 국무장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참전 등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손에 맡겨졌다. 각기 다른 분야의 경험 유무가 트럼프

사업가적 기질 풍부한 트럼프

재임 중 위험한 결정 내릴 수도

군인이 무력사용에 더 신중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강한 무력제재 예상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 ‘경험’이라는 키워드로 퍼즐 맞추기를 시도해왔다.

기업 경영인과 협상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은 앞으로의 미국 외교전략과 의사결정 방식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트럼프는 2000년대 중반 스코틀랜드 애버딘시의 반대를 뚫고 메니 에스테이트 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밀어붙여 관철시켰다. 3년이 넘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는 때로 상대방을 조롱까지 하는 거친 스타일로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을 지치게 해 결국 골프장 사업에 유리

한 계약을 성사시켰다. “러시아는 법치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없다”고 공개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던 틸러슨도 태도를 180도 바꿔 러시아 원유 채굴사업을 따냈다. 이념과 가치, 노선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업가적 기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와 틸러슨이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최근의 분석은 그들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협상가적 기질이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기업경영을 하며 체득한 세계관과 스타일,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는 2017년 1월 20일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과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도구적 합리성과 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한 적응과 대처 등의 기업가적 덕목을 체화하는 데 성공한 CEO 출신들답게 대통령과 국무장관 자리가 부여하는 고유의 역할과 타인의 기대, 그리고 새롭게 축적되는 경험에 의해

자신들의 눈높이와 행보를 맞춰갈 가능성 역시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이들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처음으로 어떠한 성공 사례를 거두느냐가 향후 집권 시기 전반의 대외정책 의사결정 스타일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당선 직후 ‘하나의 중국’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 역시 아직은 비즈니스 마인드의 협상가로서의 ‘거대 성향’을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작은 상태에서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테스트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자극을 통한 거래로 대중국 협상 스타일을 발견할 경우 재임 동안 지속적으로 이를 채택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와 틸러슨의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와 ‘거래 해결사(deal-maker)’적 성향’은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비공식적인 채널을 선호하는 리더십 스타일과 자문 시스템을 운영할 가능성

이 커 보인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틸러슨은 내전과 테러, 온갖 암투와 권모술수, 그리고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국제분쟁 지역에서 오일머니를 위해 대담하면서도 내밀한 거래를 성사시킨 인물이자 사업상의 이권을 위해 친러 성향까지 보인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이런 특징을 감안할 때, 공식적 관료 조직과 관련 전문가들을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역할로만 한정시키는 리더십 스타일을 보일 확률이 높다. 그들의 의견은 참고로만 하고 자신들이 직접 실행 가능한 해결책 모색에 집중하며 옵션을 구상하고 결과를 고려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다.

반대로 트럼프 본인이 선호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지 못할 경우 직무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투입하는 에너지와 노력도 작아지면서 켈빈 쿨리지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이 보인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대통령 캐릭터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트럼프는 대외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많은 권한을 자신과 스타일이 비슷한 틸러슨에게 이양할 수 있고, 틸러슨 역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부보좌관 등에게 의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외교안보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은 또 어떤 전망을 가능케 하는가.

미국의 정치심리학자 마거릿 허먼의 연구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외교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일수록 독자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대외정책의 성과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문제의 성질과 국가 정책 목표에 따라 전략을 수정한다고 한다. 즉 경험이 풍부

도널드 트럼프의 ‘군산(軍産)복합형’ 외교안보팀

동부한 글로벌 경영 경험-‘협상가’ 라인		화려한 군사 경험-‘베테랑 군인’ 라인				
						
렉스 틸러슨 (64) 국무장관-엑손모빌 CEO 2012년 러시아 정부 훈장인 ‘우정훈장’ 받음	빈센트 비올라 (60) 육군장관-역만장자 사업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플로리다 팬서스’ 구단주.	제임스 매티스 (66) 국방장관-‘미친개(Mad Dog)’로 불리는 4성 장군의 전 중부군사령관	마이클 플린 (58)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전 국방정보국 국장을 지낸 3성 장군	키스 켈로그 (72) NSC 사무총장-베트남전 참전 경험 있는 제82공수사단장 출신 3성 장군	마이크 폼페오 (53) 중앙정보국(CIA) 국장-육사출신. 제7기갑기병연대 대위로 예편. 연방 하원의원	존 켈리 (66) 국토안보장관-4성 장군의 전 남부사령관. 이라크전서 다국적군 지휘.

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 북한 정권 불량성 주목…대북 군사행동 선불리 나서진 않을 듯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 면면을 볼 때 한반도, 특히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관심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로 요약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에 전반적인 재평가는 분명히 수행될 전망이다.

대체로 새로운 외교안보팀 인사들은 공화당의 기존 입장에 충실하면서도 더욱 강

경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 정권의 존속 여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는 북한을 광신 정권이라 칭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북한 정권의 불량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이 많이 포진되긴 했으나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선불리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한·미 동맹은 핵심적 동맹이기에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동맹 체제나 한·미·일 협력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유지를 위해 한국 측

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동맹국들이 동맹 관계에 좀 더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 등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기에 동맹에서의 한국 측 비용 분담 증대와 책임영역 재고 압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또 다른 선거 모토는 ‘위대한 미국 재건설(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다. 즉 트럼프는 경제력, 군사력 증강에

기반한 미국의 강력한 지위 회복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력을 증강하는 한 방법은 동맹국들의 부담을 늘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미국산 무기 수출을 많이 해 해당 무기의 단가를 낮추어 새로운 무기 획득을 쉽게 하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와 미국의 대표적 첨단무기 생산업체인 보잉·록히드마틴의 갈등 에피소드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의도는 월스